

기고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이 최고의 안전

작고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최근 휴대전화,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전과 방전 효율이 뛰어나지만, 충격이나 고온·과충전 상황에서는 내부 단락(합선)이 일어나 급격히 발열하고, 순식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OO지역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 내부까지 번져 큰 재산 피해를 남겼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정품 충전기 사용 - 값싼 호환 충전기는 과전류 차단 장치가 부족해 화재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충전 중 무방비 방치 금지 - 장시간 자리를 비운 채 충전하거나, 취침 중 충전은 매우 위험하다. 코드를 뽑아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고온 환경 피하기 - 배터리는 여름철 차량 내부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넷째 충격·변형 배터리 사용 금지 -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충격을 받은 배터리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교체해야 한다.

다섯째 충전 중 가연물 주변 정리 - 주변에 이불·종이·옷가지 등이 있으면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또한 119에 신고 후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사고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점검해야 생활 속 편리함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국민기

성서는 말한다.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에 대해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잠언 18장 24절)"라는 구절이 그렇다.

이 뜻은 가짜 친구들을 많이 둔 자는 결국 그 친구들 때문에 파산하거나 망하게 되고 참 친구는 패가망신할 때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남아서 돕는다는 뜻이다. 잠언 19장 4절에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는 나라."는 구절이 있다.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참된 친구들이 많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래전의 어느 전직 대통령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의 눈 안에 들려고 수많은 아첨꾼들이 노력했다. 모든 것을 다 바칠 듯이. 그런데 막상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자마자 재직 시 보여주었던 충성심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곧 자신들의 권력욕, 물욕 등만 가득 채우기 위해 대통령 재임 시에 각종 아부만 했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통령 주변에서 오랫동안 생사고락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이재명 정부! 청사에 길이 남을 업적 이룩하길

을 함께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충성심을 다 바친 것 같았던 작자들이 말이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전성시대만 활짝 열려있던 것이다.

과면당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이 같은 처절한 작태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의 무서운 속성을 느꼈을 것이다.

물론 필자도 이 전직 대통령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다. 성향이나 가치관 등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도 이를 타산지식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국정을 펼쳐갈 때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도 가능

하면 속전속결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하고, 길게 끌수록 피아간에 지치기 때문이다.

자고로 그 어느 정치세력이든지 간에 군더더기들이 무슨 언행을 하더라도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누더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 임기는 길지 않다. 더더욱 단임제다. 급방 흘러간다. 대체로 임기 3년을 넘어서면 누수 현상이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임기 초창기에 하고자 하는 정의와 합리에 기반한 정책들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란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부터 잘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 와서까지도 당나라 태종을 현인이라 칭하는 것은 인사를 잘 했기 때문이다. 친인척 등 측근에게는 오히려 불이익까지 주면서, 인사는 만사다. 자고로 풀단지 근처에는 쉬파리 떼들이 몰려들기 마련이다.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이때 솔로몬의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정권이 끝난 후, 수많은 난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처럼.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100% 잘할 수는 없다. 때문에 참된 국민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현정을 펼쳐가길 바란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좋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질 거라 생각하기에, 사실 별것 아닌 듯한 직장에서도 조금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면 각종 아부 등을 다하지 않던가. 하물며 일개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대통령은 옥석을 잘 구분해가면서 옥은 옥의 자리에, 석은 석의 자리에 잘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발 이재명 정부가 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룩해주길 바란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구급대원 폭행,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진도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을 불문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강력한 처벌

과 대응이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진도소방서는 현재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적용 ▲경찰과의 공조출동 ▲웨어러블 캠·방검복 착용 ▲심리·법률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철 진도소방서는 "무엇보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군민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홍보담당 소방서 노은서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음력 8월 26일)

48년생 다시 얻은 기회지키고 아껴내자 60년생 이름다움이 담긴 선물을 받는다. 72년생 치명적인 유혹도 모른 채 해야 한다. 84년생 단단해 진입지 계급급이 달려간다. 96년생 화려한 전성기 역시 소리를 들어보자.

49년생 기억에 남아있는 경험을 깨닫는다 61년생 고왔던 시절 연애 감정이 다시 온다. 73년생 먹구름 걷히고 무지개가 떠온다. 85년생 좋다 하는 고백 시용이 만들어진다. 97년생 인으로 하는 자랑 초래해 보여진다.

50년생 흥분하다 싶은 차선을 가져오자 62년생 여럿 중에 으뜸 차별화를 보여준다. 74년생 남편은 있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86년생 크고 화려한 승리로 인정받는다. 98년생 울음소리 배려해야 허락을 받아낸다.

51년생 멀리 있는 목표 욕심 없이 가보자 63년생 희망이라는 불씨 뜨겁게 타오른다. 75년생 선택의 갈림길 문고 답해야 한다. 87년생 따끔한 충고를 심각하게 받아내자. 99년생 착하게 하는 행동 관심을 받아낸다.

52년생 터헐할 줄 모르는 강함을 지켜내자 64년생 깊은 우경 공한 쪽도 나뉘보자. 76년생 고마운 존재다. 거듭남을 가져보자. 88년생 근심 걱정을 말끔하게 제거하자. 100년생 꿈꿈하게 행고 낭비를 막아내자.

53년생 누구보다 애뜻한 손님이 해보자 65년생 필요한 도움 우렁각시가 다녀간다. 77년생 얼린 없는 방법 끈기로 앞서 보자. 89년생 어떤 위키인인지 알아야 한다. 91년생 연승이 아닌 실전 각오를 다시 하자.

54년생 빛나는 결과물 부자 소리 들어보자 66년생 책한 권 부족함 무용담이 생겨난다. 78년생 주변 정리에 깔끔함을 가져보자. 90년생 대접받을 권리 쉬쉬 보이지 마라. 92년생 필요한 일꾼이다. 칭찬을 들어보자.

55년생 힘들었던 과정 이야기로 남겨진다. 67년생 진짜 같은 거짓 포장을 벗겨내자. 79년생 사투르면 손해 기다림을 길게 하자. 91년생 도망치고 싶어도 경면파해내자. 93년생 반역한 조건에서 최고를 찾아내자.

56년생 친구이름 읽는 호시를 누리보자 68년생 까다로운 질척도 반드시 가져보자. 80년생 시시비비 있어도 원칙을 지켜내자. 92년생 열심 허하지매 일조를 그려내자. 94년생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음을 지켜내자.

57년생 늦어지는 반응 거절임을 알아보자 69년생 익숙한 장소에서 조심을 더해보자. 81년생 비단옷 걸치고 경승편서 되어보자. 93년생 혼자하는 상상하다. 여럿이 함께 하자. 95년생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58년생 관해하는 고생 본전도 못 건진다. 70년생 새로운 식구들 울타리 가꿔내자. 82년생 원하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다. 94년생 진행은 일사천리 쉽고 편하게 간다. 96년생 생각이 다른 만큼 빠르게 돌아사자.

47년생 반기워 팔짝 뛰는 제인을 들어보자 59년생 하하호호 웃음 행복이라 쓰여진다. 71년생 못난 책임 전가 꼬리가 달려간다. 83년생 합리적 인가래도 장이 찍혀진다. 95년생 부탁하는 차치하러부터 속내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GC) celebrating its 50th anniversary. It features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the slogan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50th Anniversary of the Incheon-Seoul Expressway Opening, Making the Lifeline of South Korea!).